

라떼는 말레이시아

계명문화대학교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서주형

“영어 포기자”, 말레이시아 페낭에 취업하다.



수능 영어 영역이 8등급이었던 나에게 해외취업이란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만큼 현실성이 없었다. 하지만 계명문화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나의 설부른 걱정은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외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과 영어 관련 수업을 지원해주는 이 학교는 마치 비옥한 토지, 가난한 땅과 같은 곳이었다.

대부분의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부한 결과, 어느새 영어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아가 해외취업에 도전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K-Move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나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된 결정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어 어학연수부터 회사 면접과 관련된 팁까지 전부 무료로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최선을 다해 과정에 참여하던 중,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어학연수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다. 취업기회까지 잃을 것 같은 걱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도 사라지는 듯했지만, 많은 교수님들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늘 응원을 북돋아 주시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님들과의 만남도 주선해 주셔서,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

그렇게 준비과정이 흘러가던 중, 드디어 첫 번째 면접 제안이 들어왔다. Teleperformance라는 페낭에 위치한 프랑스계 기업이었다. 그동안 K-move 프로그램에서 배운 영어와 인터뷰 스킬들을 되짚어보며 면접에서 발휘할 수 있었고, 1차 합격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소위 ‘영어 포기자=영포자’였던 내가 외국계 기업 취업이라는 복권을 쥌 수 있었다.



쿠알라룸푸르 도착, 어서와!! 격리는 처음이지

2021년 4월 9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쿠알라룸푸르에 입국했다. 나는 분명 저녁 7:45분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가격리 호텔에 도착하니 새벽 2시였다. 코로나 검사 때문에 공항에서 5시간 이상을 체류했다. 하지만 그것마저 행복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기 때문이다.



자유를 얻기 전, 10일간의 호텔에서의 자가격리가 필수였다. 물론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기에 ‘호캉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격리기간에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노트북으로 첫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트레이닝은 100% 영어로 진행되었다. ‘K-Move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과정들을 과연 헤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한 것 같다. 10일간의 격리가 끝나고 페낭으로 가기 전,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 페트로나스타워를 보러 갔다. 타워를 보자마자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말레이시아…심하게 좋은데?”

페낭, 진심으로 좋다.

모든 경험에 감사함을 느끼자.

국내선을 타고 페낭 공항에 도착 후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쿠알라룸푸르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조용한 제주도에 온 느낌이었다. 이성에게 첫 눈에 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초라고 한다. 나는 7초 만에 페낭이라는 도시에 빠져버렸다.

내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인 음식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2년 정도는 한식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을만큼 맛있는 음식과 식당이 많고, 요리 전문가 백종원씨가 TV프로그램에서 극찬하던 식당들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와 산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배산임수인 곳에 집을 얻었다. 에메랄드 빛의 바다는 집 앞에서 볼 수 있고, 푸른 식물과 자연 풍경을 집 뒤편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23년의 인생 행복지수 그래프에서 최고치를 찍고 있다.



생애 첫 직장을 해외에서 가지게 되고 첫 자취 또한 해외에서 하게 되었다. 힘들다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K-Move를 통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중이다. 나는 페낭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펼쳐 나갈 것이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예정이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라떼(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게 될 때 말레이시아에서 겪은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을 만큼.